



항생제 내성예방 수칙

항생제 내성이 뭐예요?

누 구 냐 넌 ?



많이 들어본 항생제 정확히 어떤 걸까요?



항생제는 세균(박테리아)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일상적으로 마이신(myci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마이신은 여러 항생제 계열 중 하나인 계열로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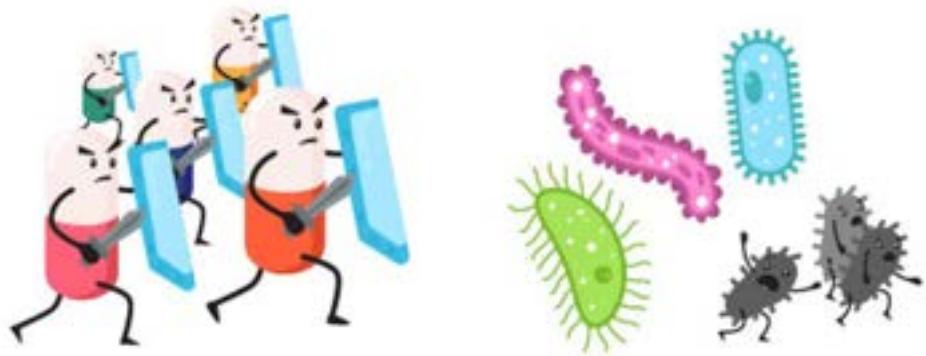
항생제는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은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약물
또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세균(박테리아)의 감염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항생제
좋은 치료제 임에도 '항생제 내성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은 또 무엇일까요?

누 구 냐 낸?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내성균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침투를 막거나 항생제 분해효소를 만들어 내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내성을 가진 세균은 내성 없는 균에 내성유전자를 전달해
내성이 더 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 구 냐 넌?

항생제 내성, 그럼 왜 위험 할까요?



최악으로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 결국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항생제 내성' 참 무시무시한 거죠.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처방받은 항생제의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 구 냐 넌?

항생제내성 예방 방법



그렇다면 이 무서운 항생제 내성을 예방 혹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1.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무엇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야 해요.

병원에서도 질병에 효과있는 항생제만 처방해야하며 환자입장에서도 개인의 판단으로 항생제를 의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돼요.

또한 항생제에 내성균이 생길 우려를 막기 위해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됩니다.

처방받은 그대로의 용법과 양, 기간을 지켜서 끝까지 복용하고 같은 증상이 있다고 다른 사람과 항생제를 나눠 복용해도 안됩니다.

누 구 냐 넌 ?

항생제내성 예방 방법



2.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항생제 내성균이 여러 경로로 사람에게 전파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 손씻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손을 씻음으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손씻기!

일상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세요!

좋은 치료제 항생제!



무서운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처방하고
현명하게 복용하여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봅시다.